

# 在京抱川市民會 제8대 이문용 회장 선출

### 12월4일 총회이준후 정동화 회장 후임으로 취임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정동화)는 지난 7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장 선출 정기이사회에서 이문용 경남신문 이사대우 국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차기 이문용 회장은 재경포천시민회 회장 제11조(임원의 선

출) 제1항에 의거 3년간의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는 회칙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4일 오후 5시 서울 충무로 4가 행복예술통화원 4층에서 개최하는 재경포천시민회 정기총회에서 이문용을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다.

재경포천시민회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문용 회장은 내촌초등학교를 나와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5년동안 재경포천시민회 부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선단 청소년에 꿈과 희망을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최인환 위원 소년소녀가장돕기 나서



포천시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건강한 청소년 여름방학 체험수기 공모전' 에서의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포천시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박순복)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인 지지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최인환(철운1동장)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은 자신이 직접 경작해 수확한 오리농법 쌀 10가마(20kg/40포)를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기증해 향후 1년간 관내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5세대에게 제공하기로 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 지도위원의 이 같은 모범은 풍성한 가을, 청년에 대한 사랑을 더욱 무르익게 하고 있다.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지난여름 선단

초등학교 5~6학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청소년 여름방학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에 수상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김예슬(선단초 6년) ▶최우수 허태규(선단초 5년) ▶우수 유영환(선단초 6년) 김단비(선단초 5년) ▶장려 윤현진(선단초 5년) 강은영(선단초 6년) 이민지(선단초 6년)

아울러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선단주민자를 방범대(대장 이음백)와 함께 "청소년 보호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b>동</b>	<b>정</b>
	<b>민방위대 창설 제29주년 기념행사</b>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된 민방위대 창설 제2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민위대대 창설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제2회 시민의 날 기념식</b> 최원일 포천경찰서장은 5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제2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발전 유공자 등 5명에 대해 시상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b>환절기 출동태세준비 철저 지시</b> 이대일 포천소방서장은 1일 가을철 및 환절기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고에 초동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b>소흘읍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b> 이만기 포천문화원장은 3일 제3회 소흘읍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제8회 솔모루문화제에 참석,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천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b>경기북부 예총회장 이사회 참석</b>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은 지난 6일 오전 12시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예총 포천지부 주최로 경기도지역내 예총 지부장, 사무국장을 초청해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의의 안전에 대해 토의했다.
	<b>목련의 집 봉사활동</b> 이병업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장은 7일 봉사대원 10여명과 함께 목련의 집을 방문 자원봉사 활동에 참석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 빨래 등 노력봉사활동을 실시했다.
	<b>제52주년 향군의 날 기념행사</b>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은 8일 향군회관에서 제52주년 향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 기념식을 갖고 보안법단체 결의대회 및 포상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축산대표자협의회</b> 양기원 포천축산협회동조합장은 8일 포천축협회의실에서 개최된 포천시 축산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해 2005년 축산업 사업설명회 및 축산업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b>포천문화상 심사</b> 윤순욱 포천제21실천협의회장은 8일 여성회관 2층 1강의실에서 개최된 포천문화상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후보들을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 인터뷰



"신도들이나 친구들 보면 부부지간에 싸우고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이나 친구 집에 가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지난 8월 포천에서는 두 번

# 신북감리교회 장동익 목사 "복지타운 만들어 지친 이들 설 수 있게"

### 올해 말 상담소 개소로 첫 출발

째로 획득한 가정폭력전문상담사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신북감리교회 장동익(50) 목사가 뒤늦게 '상담'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때 큰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맨 후 다시 회생하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로 한 결심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년 정도 공부해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고자 그는 요즘 교회 2층에 공간을 마련해 '행복한가정종합상담소'를 꾸미는 일에 한창이다. 당초 10월에 오픈하려 했으나 더 세심한 준비를 위해 지연하고 올해 말쯤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 포천에 상담소가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상담도 주력하겠지만 신앙상담도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는 목사 신분으로 신앙상담을 한 지는 오래인지라 상담방면의 '노하우'는 터득했다고 자부한다. 또 폭력 예방에 힘쓰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다른 곳과의 차별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다.

그가 이렇게 상담소를 개소하기로 결정한 데는 교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교인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당연히 교회

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가 못내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 상담소와 함께 마련하려 했던 '쉼터'가 자격요건이 안 돼 설치가 반려된 것.

"앞으로 이 곳에 쉼터 등이 함께 있는 복지타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그런 말들이 성행하지 않는 포천을 가꿔나가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제 서서히 첫발을 내딛는 것이지만 조심스런 발걸음이 멀리, 그리고 깊게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해본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 어르신푸른대학

## '은빛 축제'

### 20일 오후 3시부터 여성회관에서

포천시보건소는 어르신 푸른대학 '은빛축제'를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포천여성회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은빛축제'는 신음1동 노인정에서 민요합창과 예능봉사단의 부채춤, 한빛예술단의 사물놀이, 관인보건지소의 민요합창과 실버댄스와 밴드초청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 나이팅게일 만큼 훌륭한 백의 천사

### 京福大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가져

경북대 간호학과 1학년 학생 193명이 5일 경북대 우당관 우당홀에서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는 마음을 다지고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김신애(3년) 학생의 마더 램프(모든 아픈 이에게 엄마 같은 간호로 희망을 밝혀주겠다는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미래의 나이팅게일'인 학생들에게 일일이 편을 수여해줬으며, 강민정 학생이 대표로 일생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봉사에 앞장 서 나가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낭독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보령 학생은 격려사를 통해 "21세기 건강과



경북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훌륭한 간호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복지를 이끌어갈 여러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줄 것"과 "이론과 실천 모두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윤국 포천시장의 축사와 송말순 영동 세브란스 간호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선서식에 참석한 어경진

학생은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해 나이팅게일만큼 위대한 간호사가 돼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 제3회 소흘읍민 체육대회 및 제8회 솔모루문화제



추산초교 학생들이 3일 소흘읍민 체육대회 및 솔모루문화제에서 난타를 공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 추산초교 6학년 270명이 연주한 난타 큰 박수

지난 10월 3일 소흘읍 소재 동남중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제3회 소흘읍민 체육 대회 및 제8회 솔모루문화제가 열렸다.

추산초등학교 관악대의 연주에 먼저 진행된 의식행사로 시작된 이날 오전 행사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흥겹고도 다양한 볼거리 공연과 경찰경의 시범이 있었는데 특히 추산초등학교 6학년 270여 명이 공연한 난타 작품은 지역 주민에게 대단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피구대회를 시작으로 31개리 대항 배구, 줄다리기, 우유먹기 등 여러 가지 체력 겨루기 판이 벌어져 리 마다의 응원으로 운동장이 온통 들쭉거릴 판이었다.

한편, 교정의 그늘과 조용한 곳에서는 사생화를 그리는 학

생들, 글짓기에 참가한 솔모루문화제 참가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과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날 행사의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소흘읍 새마을 부녀회와 소흘읍여성유소방대는 2천여명의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봉사의 땀방울을 흘리며 경찰경의 시범이 있었는데 특히 추산초등학교 6학년 270여 명이 공연한 난타 작품은 지역 주민에게 대단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렇게 읍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펼쳐진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각 리 대항 노래자랑 무대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소흘읍민과 더불어 포천시,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폭죽을 하늘 높이 쏘아 터트리며 이날 행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주부영예기자 김기호 sujung215@hanmail.net

# 성심 양 · 한방병원 開院

### "운천 종합병원 역할 담당할 터"



영북면 운천리에 양·한방 종합병원의 기능을 담당할 성심 양·한방병원이 지난 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활동에 나섰다.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양·한방 종합병원의 기능을 담당할 성심 양·한방 병원이 지난 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활동에 나섰다.

성심외과의원장이며 카톨릭의 대 외과교수인 이봉석 원장과 신천병원 산부인과장이며 카톨릭의대 외과교수인 류현선 원장, 김한방병원장 출신인 양법석 원장 등 3인이 합심해 양·한방 협진병원을 개원하게 된 것.

의료진의 현대화와 건물 시설

의 현대화, 응급진료의 신속화, 한방 종합병원의 기능을 담당할 성심 양·한방 병원의 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병원을 개원한 이봉석 원장은 "각자의 능력을 결합해 최선의 진료로 장비 및 시스템으로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응급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료상담 및 문의는 031-532-3500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국립수목원, 17일 특별무료開放

국립수목원이 10월 17일 제3회 산의 날을 맞아 전국민의 산에 대한 관심 및 광릉 숲 보전의지 확산을 위해 특별무료개방한다.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당일 수목원 주차장 내 승용차는 입장이 금지된다.

예약전화 031-540-2000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지난달 30일 자작1동 청년들이 태극기를 집집마다 달아줬다.

지난달 30일 자작1동에서는 마을 내에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아

주는 행사를 실시했다.

마을 임원, 청년회, 부녀회 등 2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200여 가구에 태극기를 달아주었다.

자작1동 장경섭 통장은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직접 달아주어 날로 희미해져 가는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이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의 화합과 애환심을 제고해 마을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최초 지난달 12일 개최된 자작1동 '추석맞이 화합의 한마당'에서 마을 내민에게 배부한 것을 시초로 계획됐다.

또 최초 300세트를 구입해 화

94spice@hanmail.net